

2022
브리지 프로그램
연차보고서

2022 BRIDGE
Annual Report

EDUCATION TRANSFORMS LIVES

2022
브리지 프로그램
연차보고서

2022 BRIDGE
Annual Report

Education transforms lives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BRIDGE makes it happen
브리지가 만듭니다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unesco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2 브릿지 프로그램 연차보고서

2022 BRIDGE
Annual Report



퍼낸일 2023년 5월 31일
퍼낸곳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퍼낸이 한경구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전화 02-6958-4135
전자우편 icp.division@unesco.or.kr
홈페이지 www.unesco.or.kr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23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간행물번호 ED-2023-RP-1

Contents

04	브릿지 소개
12	브릿지 연혁
14	브릿지 실적
16	2022 사업 보고



브릿지는
학교 밖 교육으로
네번째 지속가능발전목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EDUCATION TRANSFORMS LIVES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문해, 글(文)을 이해(解)하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글을 이해하는 사람은 길을 찾아 더 멀리 갈 수 있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기도문을 외며 종교 활동을 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하며,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글을 이해하게 되면 삶을 온전히 누릴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7억 8천만 명이 넘는 성인이 글을 읽지 못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가 2억 4,400만 명에 달하고, 1억 5천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아동 노동에 동원되며 배움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상 곳곳에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많은 벽이 있습니다. 배움은 이들에게 스스로 벽을 허물어 착취와 소외, 가난의 고리를 끊는 힘을 줄 수 있고, 그렇게 벽이 허물어질 때 우리 사회는 더 넓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66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더 나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99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UN이 세운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네 번째 목표는 누구든, 언제든지 포용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교육의 테두리 밖에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한다면 이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BRIDGE MAKES IT HAPPEN

브릿지가 만듭니다



브릿지 소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교육이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6·25전쟁 당시, 우리 국민의 손에 빵이 아닌 책을 쥐어준 것이 바로 유네스코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역량을 기르고, 불과 반세기 만에 유례 없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66

교육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한국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 교육 재건 계획 최종보고서(1953)」, 유네스코/유엔한국재건단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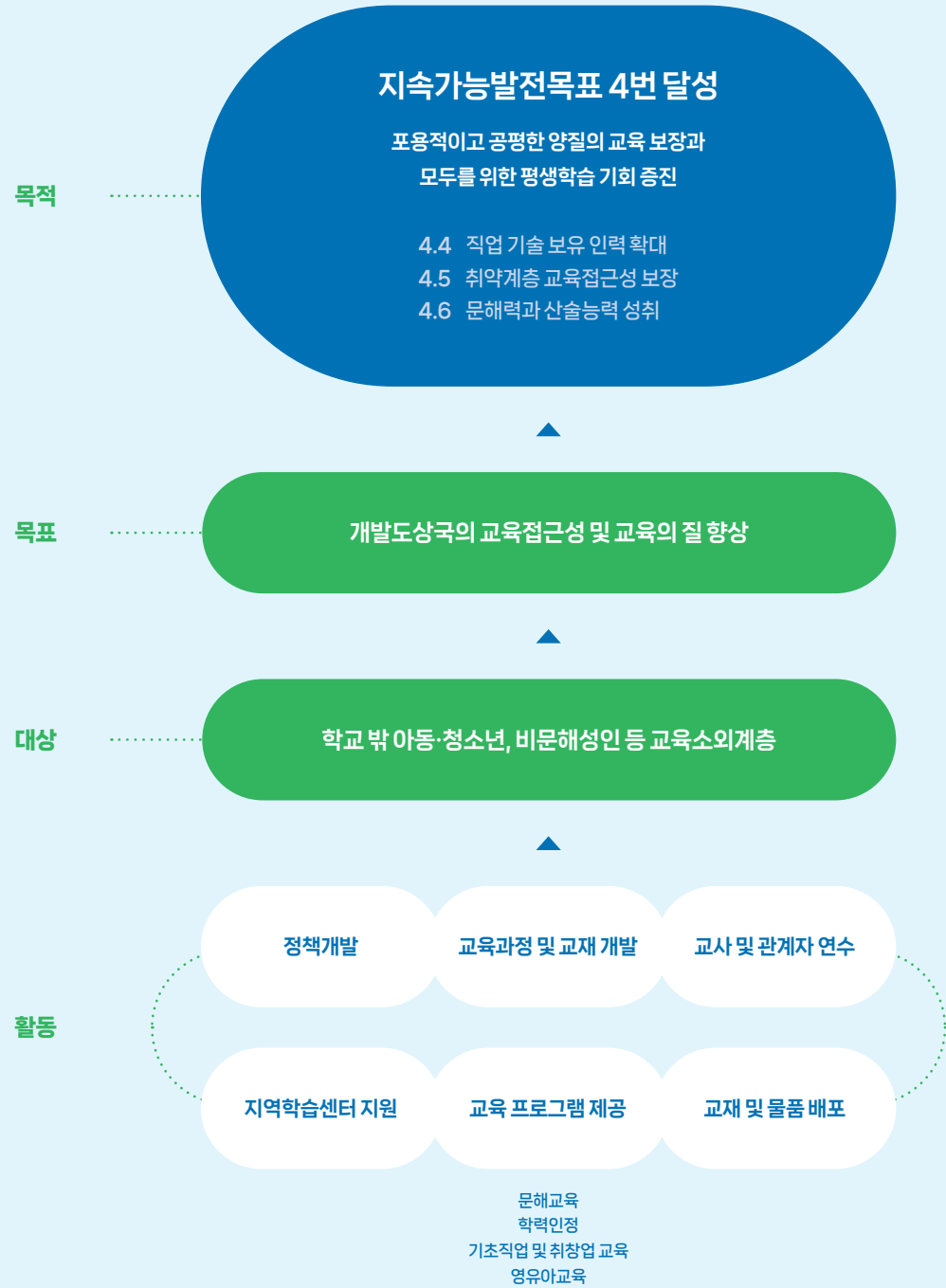
이러한 경험을 거울 삼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학교 밖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 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의 삶에 변화를 안기고자 브릿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3년간 24개 국가의 학교 담장 밖에서 교육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를 마련해 주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습할 공간을 마련하고, 읽기와 쓰기, 셈하기, 생활과 기초직업기술을 가르치고, 교사의 역량을 높이고,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 이들 국가가 교육 정책에서 학교 밖 교육을 중요하게 다루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처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배움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렇기에 배움 위에서 어렵게 피어난 변화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이 지구촌 곳곳에서도 같은 기적을 이루리라 확신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처럼, 브릿지 협력국의 학습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브릿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브릿지

브릿지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비형식교육(학교 밖 교육)을 지원합니다. 정책을 개발하고, 학습 센터를 구축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접근성과 교육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교육) 달성에 기여합니다.

브릿지 소개



역할과 책임



브릿지 소개

협력국 교육부

브릿지는 현지의 학교 밖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협력국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별사업 활동이 자국의 교육 정책에 부합하는지 살피고, 실제 사업의 이행을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성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합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브릿지의 기획과 실행을 총괄합니다. 학교 밖 교육 지원이 필요한 협력국을 발굴하고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협력국과 상시 소통하여 사업 활동 현황을 모니터링합니다. 협력국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돕고 사업 성과와 이행 과정을 평가합니다.

브릿지국별위원회

정부 정책 수립에서부터 실제 학습이 일어나는 교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의 활동으로 짜여진 브릿지 사업의 의사결정과 활동 이행 과정에는 여러 관계자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브릿지국별위원회는 협력국의 유네스코국가위원회를 비롯해 현지 사업의 핵심 파트너인 중앙 및 지방정부, 지역사회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로, 정기적인 회의와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

협력국 유네스코 국가위원회

브릿지는 교육부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와 사업 이행을 위해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부 차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선도하며, 한국의 우수한 교육과 발전 경험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별 사업의 실질적인 이행을 책임집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지역사회, 교사, 학습자 등 다양한 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예산의 집행 및 보고와 신규사업 발굴도 맡고 있습니다.



협력국 시민단체

브릿지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는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수상기관과 같이 국제적인 전문성을 입증받은 협력국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협력국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한 시민단체와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2010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청년지역전문가 양성 사업 착수

- 아프리카 6개국에 청년 활동가 16명을 파견, 청년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아프리카 희망 브릿지’ 사업(한국국제협력단과 삼성전자의 민관협력)을 시작

2011

아시아지역 기후변화 및 과학교육 사업 실시

- 아시아 5개국에서 기후변화교육 사업과 과학교육 사업을 실시

2013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사업, ‘브릿지 아프리카’ 개시

-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기초문해 교육개발협력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브릿지 아프리카’가 교육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재정비



2012

‘세종 프로젝트’ 착수

-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수상기관의 문해사업을 지원하는 ‘세종프로젝트’를 아시아 4개국에서 착수



2015

‘브릿지 아시아’, ‘브릿지 워크숍’ 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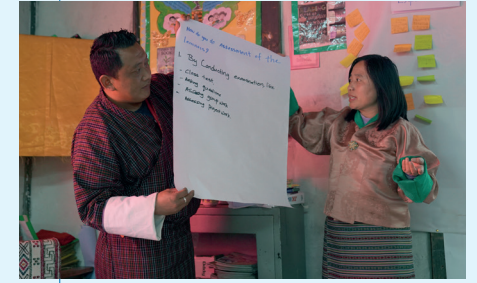
- ‘세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아시아 6개국에서 문해 및 기초직업교육을 지원하는 ‘브릿지 아시아’ 사업을 개시
- 사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브릿지 협력기관이 서울에 모여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이후 컨퍼런스/워크숍을 해마다 실시해 대한민국 교육 양자 ODA 성과를 다자협력의 틀로 확산



2016

현지 교육부, 유네스코국가위원회 중심 사업 수행체계 구축

- ‘브릿지 아프리카’ 협력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교육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현지 정부 주도 안정적인 수행체계 구축
- 말라위 릴롱게에서 아프리카 지역 7개국이 참여한 브릿지 아프리카 컨퍼런스 개최



2020

‘브릿지 2단계’ 개시

- 8개국에서 실시한 ‘브릿지 아프리카’ 사업과 13개국을 지원한 ‘브릿지 아시아’ 사업을 마무리
- 5년간 국가별로 1백만 불 규모의 ‘브릿지 2단계’ 사업을 동티모르, 라오스, 부탄에서 시작

2022

브릿지 3단계 사업 준비

- ‘브릿지 2단계’ 대상국가의 사업 종료에 맞춰, 취약계층 교육기회 확대 기여를 위한 수원국 수요조사, 사업연구 등 3단계 사업을 기획

2021

‘브릿지 세종’ 시범사업 실시

- 유네스코 세종문화상 수상기관의 문해사업을 4개국에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실시
- ‘브릿지 2단계’에 아프리카 말라위를 대상국가로 포함



2018

‘브릿지 아프리카’ 점진적 종료, ‘브릿지 2단계’ 사업 기획

- ‘브릿지 아프리카’ 국가 사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브릿지 2단계 사업 기획

브릿지는

지난 13년간 2010~2022

24개 국가에서 140,059명을 위한

교육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

130,875명

역량이 강화된 교사 및 관계자

9,184명

배포된 교재 및 물품

127,088개

파견된 청년 전문가

55명

2022 BRIDGE COUNTRY PROJECTS

2022년
국별 프로젝트 보고



69개소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운영

9,114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1,701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9,980개

교재 및 물품 배포

*말라위, 부탄은 목표치 기준

동티모르

라오스

말라위

부탄

스리랑카

요르단

우루과이

파키스탄



22살 동티모르, 교육이 곧 변화가 되는 곳



2022년 사업 성과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개보수
3개소

지역학습센터 운영
10개소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해, 학력인정, 기초직업훈련
555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28명

교재 및 물품 배포
1,240개

동티모르에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

동티모르는 포르투갈과 인도네시아의 오랜 식민지배로부터 2002년에 독립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동티모르는 교육을 포함한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가 재건 및 성장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UN이 선정한 아시아 최저개발국 9개 중 하나인 동티모르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육 발전 수준도 낮습니다. 오랜 식민 지배의 여파로 65세 이상 성인의 문해율은 15%에 그치며, 15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문해율도 68% 수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티모르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동티모르의 67개 지역(Subdistrict)마다 1개씩 지역학습센터를 건립하고 활성화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교육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역사적인 고난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자라나는 동티모르의 젊은 세대를 위한 학교 밖 교육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지역학습센터 학생
테오(Teo Tonio Saladanha Baros) 군

“ 지역학습센터가 생겨서 난생 처음 컴퓨터를 만져보았습니다. 처음이라 낯설지만 무척 재미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과고, 컴퓨터도 잘 배우고 있으니 좋은 조종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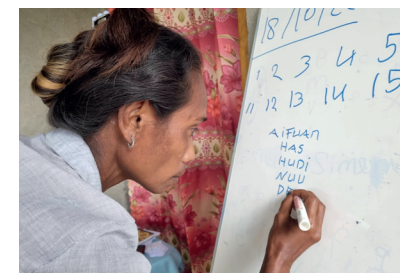
한국어도 컴퓨터도 지역학습센터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유네스코동티모르위원회, 교육청소년체육부와 협력하여 동티모르 10개 지역 15개 지역학습센터의 건립과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물리적인 시설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해교육,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교육, 새로운 삶의 기회를 꿈꾸는 청년과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기술교육 운영도 지원합니다. 특히 컴퓨터 수업과 한국어, 영어 수업이 포함된 기초생활기술교육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학습센터 복원

브릿지 사업은 동티모르의 교육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동티모르 정부는 지역학습센터 활성화를 통해 모든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브릿지 사업은 지역학습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새롭게 센터를 건립하고, 센터가 노후화된 지역에는 개보수를 지원함으로써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마을의 지역학습센터는 배움의 공간이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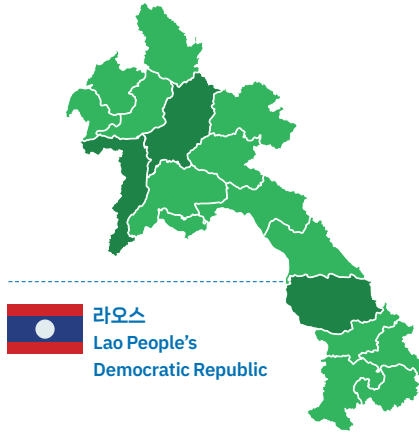
교육 프로그램 제공

브릿지 사업은 크게 3개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성인과 청소년을 위한 문해교육, 학교를 갈 수 없는 학령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력인정교육, 삶의 기회와 소득 창출을 꿈꾸는 주민을 위한 기초생활기술교육입니다. 학력인정교육은 지역 교육청과 협업하여 특정 과목과 시간을 이수하면 공립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과정으로,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초생활기술교육은 처음에 재봉 수업에서 시작해 주민들의 수요와 요청에 따라 한국어, 영어, 컴퓨터 등 다양한 과목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브릿지 사업은 교육을 향한 동티모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교사 역량강화

문해교육을 지도하는 교사에게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와는 다른 교수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했던 일부 학습자들은 연필 쥐는 법부터 배워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브릿지 사업은 문해교사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과 지식과 교수 방법을 보급하며,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지역학습센터 관리자에게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전수하고 센터의 관리와 운영 지원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악국가 라오스 교육의 **솔루션**, 지역학습센터



2022년 사업 성과

지역학습센터 운영
30개소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해, 학력인정, 기초직업훈련
1,166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60명

교재 및 물품 배포
6,710개

라오스에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

라오스는 국토의 약 80%가 산악지역으로, 자연이 선물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국민의 약 70%가 불교도인 고요하고 온화한 나라입니다. UN이 선정한 아시아 최저개발국 9개 중 하나인 라오스의 1인당 국민 소득은 약 2,500달러로 전 세계 평균인 12,000달러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악 지형 때문에 교육 시설을 충분히 갖추기도, 학습자들이 학교를 다니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라오스에는 여전히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학습센터 학력인정교육 교사
반푸이(Ms. Vanpeui) 씨

“ 지역학습센터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

라오스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라오스 교육부 및 유네스코라오스위원회와 함께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과 통행이 어려운 산간지역 3개 주(사야부리, 사바나켓, 루앙프라방)의 30개 지역학습센터를 지원하며 주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개선

우리의 지원이 그 나라의 정책에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브릿지 활동의 목표입니다. 브릿지의 지원으로 라오스 정부는 기초직업교육 교수 학습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전국 지역학습센터 운영과 관리를 위한 매뉴얼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라오스의 평생학습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학습센터 확산을 위한 모델 센터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역학습센터 지원

반푸이 선생님의 말처럼 마을마다 세워진 지역학습센터는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브릿지 사업은 산간 오지의 지역학습센터 30곳에 행정 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기기, 수업을 위한 교육물품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라오스의 340개 지역학습센터 중 약 10%에 해당합니다. 또한, 라오스 전역의 지역학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지역학습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했습니다. 라오스의 모든 지역학습센터가 마을 주민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과 학력인정교육 실시

반푸이 씨와 같은 교사들이 30개 지역학습센터에서 학교에 가지 못한 어린이와 청소년, 글을 모르는 성인에게 문해교육과 학력인정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푸이 씨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이지만, 학교에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 스스로 지역학습센터 교사로 자원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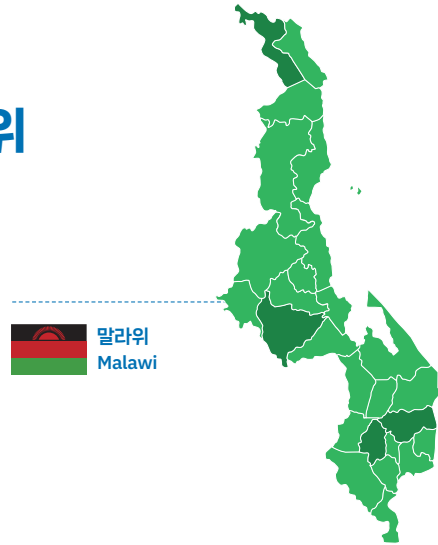
교사 역량강화

반푸이 씨처럼 학교 밖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들을 위해 교사 워크숍이 운영됩니다. 교과 과목과 교수법을 함께 배우고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문해교육과 학력인정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함양합니다. 또한, 학습자를 위한 교수법을 학습하고, 라오스 전통 조리, 양계, 오토바이 수리 등을 새로 배웁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초직업교육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초직업교육과정 운영

1년에 한 번 지역학습센터에서 기초직업교육 워크숍이 열립니다. 교사연수를 통해 교육된 교사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초직업교육과정을 5일 동안 운영합니다. 라오스 전통 조리법부터 양계, 오토바이 수리에 이르기까지 라오스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초 기술들을 가르치며, 이는 주민들의 소득창출로 이어집니다.

가난하지만 글을 통해 희망을 이끄는 나라, 말라위



2022년 사업 성과

☀️ 교사 양성 학위 과정 개발
1개

🏫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개보수
신규 설립 1개소, 환경개선 3개소
4개소

🗣️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해, 기초직업, 영유아교육
2,300명

👥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00명

📐 교재 및 물품 배포
1,300개

말라위에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

1인당 GDP 496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조혼이나 일부다처제, 성인식 등의 불합리한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HIV/AIDS 등의 질병이 만연하며 초등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아이들이 69%에 달합니다. 교사 한 명이 많게는 120명 넘는 학생을 담당해야 할 정도로 학생 수에 비해 교사가 부족해 교육 품질이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 지는 비형식교육은 단순히 형식교육에서 소외된 이에게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도록 돕습니다.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 브릿지 담당 전문관
치코티(Mr. Chifuniro Chikoti) 씨

“ 배우려 하는 사람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도 부족한 말라위에서
학교 밖 교육을 키우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교사 양성 과정 개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말라위 교육부, 노동기술혁신부 및 유네스코말라위위원회와 함께 말라위의 수도인 릴롱궤, 장애 인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남부 블랜타이어와 줌바, 그리고 북부의 치티파의 지역학습센터에서 학교 밖 아동·청소년 및 글을 모르는 성인을 대상으로 비형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 워크숍과 교사 양성 학위 과정 등을 개설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책개선

말라위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젊은이와 성인의 높은 비문해율과 계산 능력 부족, 높은 실업률, 빈곤, 교사 및 공무원의 역량 부족 등입니다.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비효율성도 개선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사람이 대다수인 말라위에서 비형식교육의 확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브릿지 말라위 프로젝트는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교사를 양성하는 성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지역 교사 및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학습센터 개보수 및 운영

말라위 남부를 중심으로 한 3개 지역에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브릿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된 지역학습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들 센터는 매년 누수와 파손이 발생하고, 학습을 위한 장비 역시 늘 부족한 실정입니다. 브릿지는 이러한 CLC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말라위 북부 도시인 치티파에 새 지역학습센터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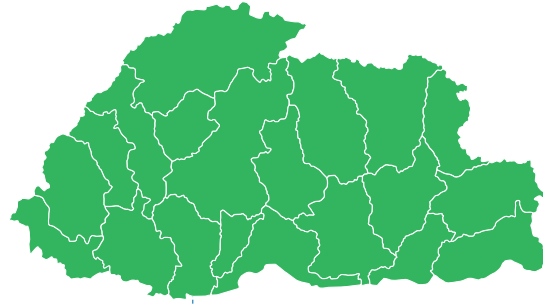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학습센터는 성인과 청소년, 미취학 아동과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곳에서 학습에 참여한 성인 참가자 중 70% 이상이 수업 참여 이후 읽기와 쓰기, 셈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의 교육 수준 향상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나아가 말라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학습자료 및 성인교육 학위과정 개발

말라위에는 학교 밖 교육에 대한 넘치는 수요에 비해 학습을 이끌 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역학습센터는 교사의 자원에 의지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형식 교육의 일선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습센터 운영자들의 역량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 사업을 통해 마련한 워크숍과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은 기존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고메로 대학과 함께 마련한 성인 교육 학위 과정 및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더 많은 성인학습 및 교육 전문가가 양성되기 시작한다면, 말라위의 교육 여건도 더욱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부탄, 학교 밖 교육으로 행복을 가르치는 나라



2022년 사업 성과



비형식교육정보관리체계 운영

1종



지역학습센터 설립 및 개보수
신규 설립 2개소, 환경개선 6개소

8개소



교사 및 관계자 연수

1,36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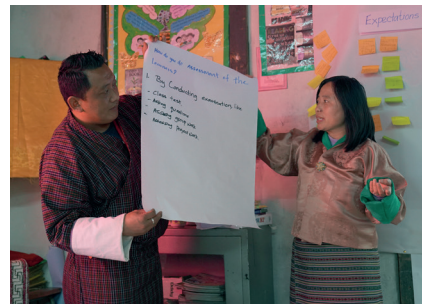


교재 및 물품 배포

1,914개

부탄에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

히말라야 산맥의 동쪽 끝, 국토의 97%가 산지로 뒤덮인 작은 나라 부탄은 UN이 선정한 아시아 최저개발국 9개 중 하나입니다. 산간지역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부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학교를 다니며 교육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인의 34%, 성인 여성의 43%가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부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비형식교육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 멘디강 지역학습센터가 없었다면 평생 주부로만 살아갔을 제가 학습자가 되고,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 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



멘디강 지역학습센터 학습자
초덴(Ms. Kinzang Choden) 씨

정보시스템 개발로 더 효과적인 교육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부탄 교육부 및 유네스코부탄위원회와 함께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주민, 특히 초덴 씨처럼 주로 가정을 돌보아 온 여성이 생활 반경과 가까운 곳에서 다시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습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기록과 평가 등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달아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사는 곳을 옮기게 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돌아가다시 공부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정책지원

브릿지 활동은 부탄 정부의 교육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반교육, 수도승 교육과 함께 비형식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의 축으로 여기는 부탄 정부는 지역학습센터 설립과 정비, 비형식교육과정 설계, 교수학습 자료 개선 등 학교 밖 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브릿지 사업을 통해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형식교육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부탄의 산악 지형은 주민의 물리적인 이동뿐 아니라 정보 전달에도 걸림돌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 학습 단계나 내용, 평가에 대한 기록을 함께 옮길 수 없어 학습을 이어나가기 어렵고, 교육과정이 개정되어도 이것이 실제로 학습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브릿지 사업은 교육 정보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비형식교육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사와 관계자, 나아가 학습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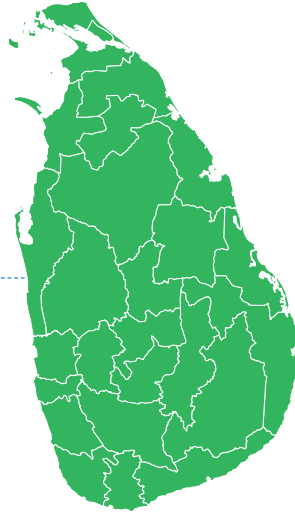
지역학습센터 지원

부탄 정부는 '연간 교육 통계'를 통해 비형식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매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탄 전역에는 비형식교육을 위해 총 505개소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 기초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지역학습센터는 28곳 뿐이며, 그 외 센터들은 문해교육을 위한 비형식교육센터입니다. 초덴 씨처럼 경제 활동과 사회 진출에 열의를 지닌 부탄 여성을 위해 브릿지 사업은 매년 2개소 이상의 지역학습센터 신설을 지원하고, 기존 센터에서 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초덴 씨와 학습자들은 지역학습센터에서 제빵과 직조, 재단, 목공 등을 배웁니다.

교사 역량강화

온라인으로 교육 정보를 관리하고, 새 지역학습센터를 운영하고, 비형식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자료를 개선하는 데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교사와 관계자의 교육입니다. 브릿지 사업은 매년 부탄 전역의 비형식교육 교사와 관계자가 새 시스템이나 교육과정, 교수법을 익힐 연수를 마련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회복, 방방곡곡 교육으로 더욱 단단하게



2022년 사업 성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해, 기초 및 중등, 기초직업

1,547명



교사 및 관계자 연수

40명

스리랑카에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

2022년은 스리랑카에 잔인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던 주력 산업인 관광업이 무너졌고, 대외부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실업률 속에서 사회는 여전히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이 시작되었지만 경제 회복의 여정은 험난해 보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도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못해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도 허다해졌습니다. 특수아동과 같은 소외계층의 교육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420만명의 학생, 235,000명의 교사가 학교 교육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스리랑카에 학교 밖에서의 기초 교육을 지원하는 브릿지 세종 스리랑카 프로젝트가 더욱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 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졸업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 제 이름으로 된 작은 공예 공방을 열고 싶어요. ”



아문유콤부라 지역학습센터의 학습자
모두산(Mr. W.K. Modushan) 씨

교육 회복을 위한 스리랑카의 열린학교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1년부터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수상기관인 스리랑카 국립교육원의 '오픈 스쿨(Open School)'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모여교육과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를 갈 수 없는 특수 아동이나 약물 중독을 겪은 청소년, 재소자들이 전국 각지의 지역학습센터에서 읽고 쓰는 법을 배우는 기초문해교육 수업에 참여합니다. 기초과정과 중등과정 교육도 있습니다. 브릿지 세종 스리랑카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형식 교육에서 소외된 여러 계층이 스리랑카의 밝은 미래를 일구어 낼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초직업교육 실시

콜롬보 북부에 있는 아문유콤부라 센터는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시설로, 기초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브릿지 세종 스리랑카 프로젝트를 통해 2021년 11월부터 새롭게 오픈 스쿨이 열렸습니다. 물건의 값을 계산하고 장부를 쓰는 산수 교육도 합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 학생들은 이제 내 일자리를 찾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브릿지 세종 스리랑카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162명의 청소년이 기초직업교육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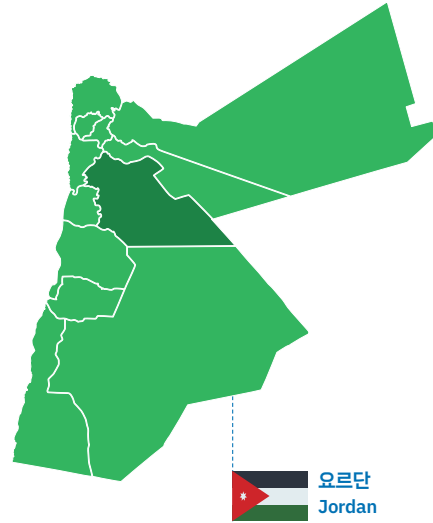
교사 역량강화와 교재 개발

스리랑카에는 공교육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의 상황에 맞춘 비형식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브릿지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재 제작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키웁니다. 특수 아동 대상 교육을 위한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오픈 스쿨에 새로 합류한 전·현직 교사를 위한 연수도 실시합니다. 2021년 이래 40명의 오픈 스쿨 선생님이 이러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여했습니다. 연수를 마친 교사는 지역학습센터의 국어, 산수, 음악과 같은 기초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공예, 기계, 요리 등 다양한 기초직업교육 현장에 파견됩니다.

지역학습센터 운영

현재 스리랑카 전역 18개의 지역학습센터가 오픈 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세종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5개의 오픈 스쿨이 추가됐습니다. 오픈 스쿨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지역과 대상에 따라 기초문해교육부터 기초직업교육까지 다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학습센터 운영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었지만,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학생과 이들을 돕고자 노력하는 선생님의 열정으로 학습장에는 늘 활기가 넘칩니다. 브릿지 세종 프로젝트를 통해 1,547명의 학생이 교육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요르단 성장의 키워드, 책 읽는 어린이



2022년 사업 성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독서교실
2,509건

참여 학습자
842명

교사 연수
118명

요르단에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

석유와 천연가스 덕분에 부유한 여느 아랍 국가와는 달리 요르단 왕국은 일부 광물 자원을 제외하면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난민 130만 명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기반이 약해 대외원조에 의지하며,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실업률도 매우 높은 상황에서 교육은 요르단의 희망입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26%나 되는 가운데, 가정과 지역학습센터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어머니들의 노력에는 요르단의 밝은 미래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의 독서교육 대사
아스마 알라셰드(Ms. Asma Alrashed) 씨

“ 2012년에 시리아를 탈출해 2013년 이곳의 캠프에 들어온 이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독서교육 활동을 알게 되었고, 세 아이를 위해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난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까지 불러왔죠. 고등 교육을 받은 적이 없지만, 책을 잘 읽어준다는 소문이 나서 캠프의 유치원 교사로도 일하게 되었습니다. ”

책 읽어주는 요르단 어머니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1년부터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수상기관인 요르단의 NGO 타기어(Taghyeer)와 함께 아동 대상 독서교육 활동인 '위러브리딩(We Love Reading)'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세종 요르단 프로젝트를 통해 어머니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독서교육 대사가 되도록 교육하고, 아이에게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기초 문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독서교육 대사 양성

브릿지 세종 요르단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책을 읽어주는 독서교육 대사입니다. 주로 자녀를 위해 독서교육을 받는 어머니가 대부분이고, 대학생이나 은퇴한 여성도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 위러브리딩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독서 교사로 활동하는 어머니를 '대사(Ambassador)'로 부르는 것은 참여하는 어머니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118명의 독서교육 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독서 세션 진행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 어릴 때 글을 읽을 줄 알게 된 아이들은 그만큼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아동과 청소년이 많은 요르단의 취약계층에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 교육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교육 대사들의 책임감 활동이 빛을 발합니다. 어머니 독서교육 대사 100명은 도서관이나 모스크,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지에서 50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연간 1,600여 건의 독서 세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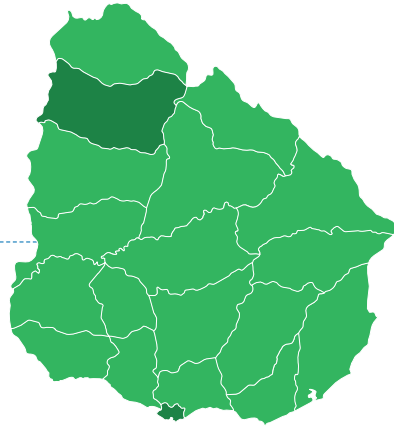
독서교육에 대한 영향 연구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재밌게 책을 읽어주기 위한 교육을 받고 독서교육 대사가 되었을 뿐인데도 이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타기어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 참여 어머니에게서 자신감과 역할 정체성, 그리고 삶에 대한 동기가 이전보다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독서교육을 받은 아이 역시 1년이 지난 후 다른 아이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독서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 성과의 전국적 확산

많은 사람들이 문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나아가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비형식 교육의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타기어는 요르단 문화부의 후원을 받아 위러브리딩 활동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는 요르단의 국립도서관도 참여하며 정부의 관심을 보여주었고, 현지 언론도 여러 차례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제고 활동은 앞으로 더 많은 어머니가 독서교육 대사로 임명되어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루과이, 삶을 리부팅하는 교육의 기술



2022년 사업 성과

문해를 진단도구 개발 **1**건

다목적 도서관 설립 **2**개소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해 **220**명

교사 연수 **78**명

우루과이에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

우루과이는 축구로 우리에게 친숙한 남미의 강소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대척점에 위치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우루과이는 인구 350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중남미의 다른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감률이 매우 높아 전 세계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대부분 범죄 유발 요인에 취약한 가난한 동네 출신으로 비문해율이 매우 높아 우루과이 전체 비문해율이 1.3%인데 비해 재소자의 비문해율은 53%에 달합니다. 양질의 교육없이 재질이 성공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들이 범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사회는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문해교육은 범죄 재발율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며 재소자의 원만한 사회적응과 복귀를 돕습니다.



우루과이 교육문화부 브릿지 담당관 아나(Ms. Ana Juanche Molina) 씨

“ 문해교육은 수감자의 출소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며칠 전에 출소한 한 재소자에게 이메일을 받았는데, 문해교육 덕분에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

생각의 창으로 새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재소자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1년부터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수상기관인 우루과이 교육문화부와 함께 재소자 문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세종 프로젝트를 통해 우루과이는 재소자 문해력 현황 기초 자료를 처음으로 만들었고, 재소자 대상 문해교육과 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며 교육 접근성과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소자 문해력 진단도구 개발

우루과이 최초로 재소자 문해력 현황을 보여주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재소자 대상 문해력 진단도구의 개발이었습니다. 사업대상 교도소 두 곳에서 이 도구를 활용해 시범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교도소의 교사 등 관계자에게 도구 활용법을 알려주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전체 재소자의 75%가 수감된 10개 교도소에서 진단도구가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수집된 문해력 현황 기초 데이터는 앞으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 시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문해교육 실시

재소자는 문해력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수준에 맞춰 마련된 문해교육 수업에 참여합니다.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재소자 대상 참여형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써 재소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 재소자들은 문해력을 갖추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다목적 도서관 운영

도서관은 새로운 세상을 향해 열린 문입니다. 도서뿐만 아니라 보드게임을 구비한 다목적 도서관은 재소자의 지속적인 문해교육 참여를 유도합니다. 도서관 운영도 재소자가 직접 합니다. 재소자들은 '사서'라는 책임감을 갖고 재고관리, 자료분류 및 대출시스템 활용 방법을 배웁니다. 다목적 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대출 공간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해교육 및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됩니다. 읽기 클럽, 철학 입문 수업과 미술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소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게 됩니다.

교사 역량강화

재소자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 대상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교사 실무그룹을 통해 교사들은 새로 개발된 '읽기 및 쓰기 교수법'을 배우고 각자의 문해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 특성 상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은 더욱 중요하며, 교사는 새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수업을 통해 재소자의 문해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말랄라의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2022년 사업 성과

지역학습센터 운영
24개소

교육프로그램 운영
문해, 기초직업
2,400개소

교사 연수
48명

지역사회 캠페인
1,279명

파키스탄에 브릿지가 필요한 이유

파키스탄은 세계 5위의 인구 대국이며,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29세 이하로 구성된 젊은 국가입니다. 하지만 빈곤율이 37%로 높은 수준이며, 문해율은 58%로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여성의 문해율은 46%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파키스탄의 청년층 여성은 여성교육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인프라 부족, 빈곤 등으로 인해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키스탄 여성 청년을 위한 문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파키스탄 출신의 국제여성교육운동가인 말랄라 유사프자이도 "교육이 오직 해결책이며, 교육이 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역학습센터 학습자
나지아(Ms. Nazia Bano) 씨

“ 창업이라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제는 삶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교육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며 제 자녀를 학교에 보냅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해교육이 제 아이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확신해요. ”

파키스탄 농촌 여성 청년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권리를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2021년부터 유네스코 세종대왕문해상 수상기관인 파키스탄 분야드문해협의회와 함께 편잡 주(州)의 4개 마을(쿠샤, 하피자바드, 라호르, 라힘야칸)을 중심으로 지역학습센터 24곳을 지원하며 농촌의 여성 청년에게 문해교육 및 기초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 실시

브릿지는 교육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의 여성 청년들이 성별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에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4개 마을에서 24개 지역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 문해교육 수료자가 교육 수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해력을 유지하는 한편, 여성 권리에 대한 인식도 높이기 위해 이들에게 여성 권리나 생활상식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자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초직업교육 운영

24개 지역학습센터는 문해교육과 더불어 기초직업교육도 제공합니다. 봉제와 수공예 등 기초적인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한 여성 청년은 직접 가게를 꾸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기초직업교육 과정을 수료한 여성 1,200명 중 약 16% 이상(188명)이 창업에 성공하여 소규모 가내수공업용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은 기초적인 문해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과 삶을 꿈꿉니다.

교사 역량강화

문해교육과 기초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 대상으로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합니다. 교사들은 연수를 통해 교수법, 수업계획과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며, 이는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습성과를 향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 또한 여성으로서 본인의 직업 전문성과 자신감을 키우게 되고, 이를 롤모델 삼아 여성 청년들 역시 각자의 가능성을 깨닫고 꿈을 펼치게 됩니다.

평생교육 기회 제공

교실 밖에서도 배움은 이어집니다. 파키스탄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릭샤(삼륜택시)를 활용하여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 곳곳에 이동식 도서관 24개소를 운영합니다. 이동식 도서관은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어린이에게도 책을 읽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허브 4개소를 만들어 지역 주민들이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 문해력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디지털 문해력을 기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식제고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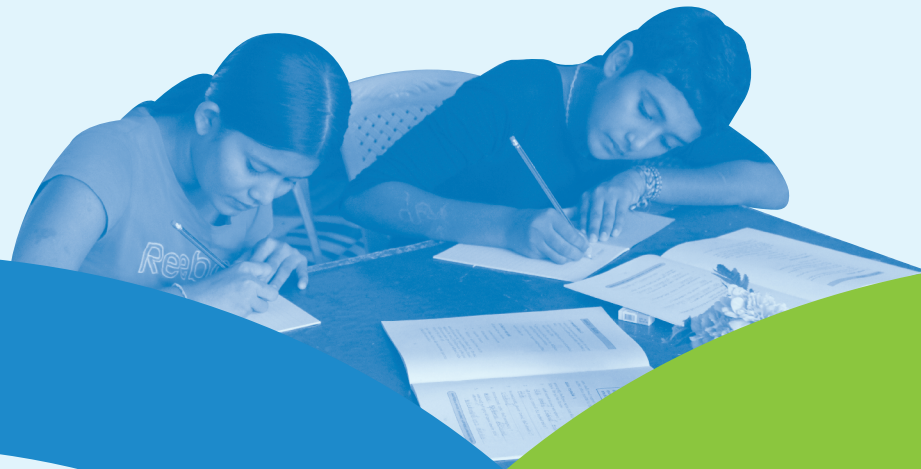
보수적인 농촌사회에서 청년이 '변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 그룹 48개를 만들어 리더십 등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이후 청년그룹의 주도하에 여성권리 향상 및 성·생식 보건활동, 주민등록 등 지역사회 내에서 꼭 필요한 사안들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을 실시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만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해 주세요.



후원문의 1800-9971
peace.unesco.or.kr



브릿지 연차보고서

www.unesco.or.kr



2016-2017 연차보고서



2017 연차보고서



2018 연차보고서



2019 연차보고서



2020 연차보고서



2021 연차보고서